

영화 <디 아더스>로 본 '햇빛 알레르기'



아이들은 햇빛 알레르기가 심해 언제나 컴컴한 곳에 살아야 한다. 커튼은 항상 쳐져 있고 문은 항상 잠겨 있어야 한다. 밀폐된 공간, 그리고 그레이스의 강박적, 비타협적 행동은 타인에 대한 의심과 공포로 특징 지워지는 우리 인간성의 어두운 면을 상징하는 듯하다. 마지막 반전과 침묵이 공포스러움을 자아내는 영화 <디 아더스>속 두 아이들의 희귀병은 다른 아닌 '햇빛 알레르기' 다.

글 이선진 기자

THE OTHERS

영화 디 아더스(The Others, 2001)

2차 대전이 막 끝난 1945년, 영국 해안의 외딴 저택.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독실한 기독교도 그레이스(니콜 키드먼 분)와 빛에 노출되면 안 되는 희귀병을 가진 두 아이가 살고 있다. 어느 날 집안일을 돌보던 하인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예전에 이 저택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세 명의 하인들이 들어오게 된다. 그레이스는 두 아이를 빛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커튼은 항상 쳐져 있어야 하고, 문은 항상 잠겨있어야 한다는 '절대 규칙'을 하인들에게 가르친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저택에는 기괴한 일들이 끊이지 않는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피아노가 갑자기 연주된다. 또한 딸 앤은 이상한 남자아이와 할머니가 이 집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를 반복한다. 두려움이 점점 그 무게를 더해갈 무렵 그들을 위협하는 실체를 깨닫는다. 예민한 성격의 그레이스는 시끄러운 아이들의 입을 막아 조용히 시키려다 아이들이 질식사하여 죽자 자신도 권총자살을 하게 되고, 자신들이 죽은 지도 모른 채 살아가던 이들이 유령으로 생각했던 사람들 즉, 'The Others'는 이 저택에 이사 온 현세인이었다.

햇빛에 의한 피부 알레르기

영화 <디 아더스>의 두 아이들처럼 햇빛을 쬐면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심한 햇빛 알레르기 환자는 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을 겪기도 한다. 백인들은 10명 중 1명이 햇빛 알레르기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확한 국내 통계는 없으나 전문의들은 한국인의 1~5%가 햇빛 알레르기를 가진 것으로 추산한다. 햇빛에 피부가 예민하게 반응해 붉은 반점 등 발진을 일으키는 모든 질환을 햇빛 알레르기라고 한다. 이는 낮에 외출하고 난 뒤 저녁이나 다음날 햇빛을 쬐 부위에 좁쌀 같은 발진이나 습진이 생기는 피부 질환으로 햇빛을 쬐는 즉시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일어나 가렵고 화끈거리게 된다.

또한 이 밖에도 평소에는 별 탈 없이 지내던 사람들도 심장병이나 관절염 약을 먹은 뒤 햇빛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다. 햇빛 알레르기는 치료는 쉽게 되지만 햇볕에 계속 노출되기 때문에 재발이 된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그래서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챙이 큰 모자를 쓰고, 긴 소매 옷을 입고, 파라솔을 써야 하고, 고기능의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흐린 날에도 자외선이 50~60%는 있으니까 햇빛에 예민한 사람은 자외선 차단제를 역시 바르도록 해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의 꾸준한 사용과 관리

햇빛 알레르기는 가시광선, 자외선 A, 자외선 B 등 햇빛의 파장에 따라 증상도 다르다. 가시광선에 취약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알레르기 증상은 '일광두드러기', 햇빛에 노출된 뒤 5분 이내에 두드러기가 나면 일광두드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로는 효과가 없고 옷이나 모자 등으로 햇빛을 가려야 한다. 일광두드러기 증상은 금방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편이며, 가려움증이 심하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된다. 자외선 A에 예민한 사람에게 주로 나타나는 알레르기는 '다형광발진'이다. 이런 체질의 사람에게 자외선 A를 쬐이면 절반 이상(56%)이 다형광발진 증상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햇빛에 노출된 뒤 몇 시간 또는 며칠 뒤에 습진이나 진물, 좁쌀 모양의 발진 등이 생기면 다형광발진일 가능성이 높다. 햇빛 알레르기 중 가장 흔하며, 심하면 10일 정도 지속된다.

자외선 B에 민감한 사람은 햇빛을 쬐었을 때 '만성 일광피부염'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다. 주로 중장년층에 나타나는데 전신에 홍조가 생기거나 좁쌀 크기의 발진, 습진이 동시에 나타나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는다. 이 같은 햇빛 알레르기의 근본 치료법은 없다. 현재까지 나온 치료법은 주기적으로 광선의 노출 양을 늘려 피부의 면역력을 높이는 광선치료, 스테로이드제 등의 약물을 바르거나 먹는 것 정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의 꾸준한 사용과 관리만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예방효과가 있다고 한다. 🌈

Tip 햇빛 알레르기 이렇게 대처하세요

1. 옷은 조밀한 직물로 된 것을 입고, 집, 자동차의 유리창에 자외선 차단막을 친다.
2. 알레르기 반응이 심한 사람은 외출할 때 얼굴을 감싸는 마스크를 쓴다.
3. 항산화 효소가 풍부한 녹차나 녹두를 삶아 미지근하게 식힌 물에 목욕을 한다.
4. 차안, 실내에 있을 때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단, 심한 민감성 피부인 사람은 예외)
5.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한다.
6. 다형광발진, 일광 두드러기가 있는 사람은 석양빛도 조심한다.